

# 심층분석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지원-글로벌 투자

2026.04.19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지원-글로벌 투자

심층분석보고서: 한화투자증권 본사지원-글로벌 투자

### 1장. 한국 증권업 산업 분석 — 호황 이면의 양극화

####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한 2025년 증권업, 그리고 그 구조적 의미

금융감독원이 2026년 3월 26일 발표한 '2025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증권회사 61개사의 2025년 당기순이익은 9조 6,455억 원(전년 대비 +38.9%, +2조 7,01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2021년 동학개미 열풍 시기의 9조 941억 원을 넘어선 기록이자, 증권업이 단순한 경기민감 산업이 아니라 구조적 체질 전환에 성공했음을 시사하는 지표입니다. 총자산은 943.9조 원(+25.0%)으로 급증했으며, 평균 순자본비율(NCR)은 915.1%로 규제 기준 대비 매우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ROE는 10.0%로 전년 7.9% 대비 2.1%p 개선되며 이익의 질 또한 함께 상승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16조 6,159억 원(+28.3%)으로, 거래대금 급증과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 확대가 숫자를 끌어올린 가장 큰 동인이었습니다. 이 숫자의 이면에는 단순한 주가 상승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 투자자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가 예금에서 주식·ETF·해외자산으로 본격 이동했습니다. 둘째, 기업공개(IPO) 시장이 반도체·이차전지·AI 관련주 중심으로 활황을 보이며 IB 수익이 확대됐습니다. 셋째, 채권형 상품과 발행어음 잔고 증가로 WM 부문이 안정적 보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즉 증권업의 2025년은 "브로커리지 한 축"이 아닌 "브로커리지·IB·WM·Trading 4축의 동반 상승"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이것이 이익의 지속 가능성을 이전보다 높인 본질적 이유입니다.

#### 거래대금 폭증과 서학개미 자금 해외 유출이라는 이중 파도

2026년 초 코스피 시가총액은 **3,972조 원으로 전년 2,254조 원 대비 +76% 급등**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 14.46조 원·코스닥 11.48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4년 평균 대비 약 1.5~2배 수준으로, 거래대금이 이 정도 폭증하면 위탁매매 수수료율 인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절대 수익이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코스피 3,000~4,000 돌파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서 MTS 신규 가입자·재활성 고객 수도 동반 증가했으며, 이는 2026년에도 브로커리지 부문의 긍정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동시에 해외 투자 쏠림은 더 이상 일시적 유행이 아닌 **구조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기준 외화주식 보관금액은 2025년 9월 초 1,963억 달러(약 273조 원)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2025년 10월 내국인 해외주식 순매수는 68억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비중이 68%에 달하며, 단일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약 10%를 차지합니다. 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팔란티어 등 AI 수혜주가 그 뒤를 이으며, '서학개미'라는 용어가 신조어를 넘어 금융시장 기본 어휘로 정착한 상황입니다.

이 흐름은 글로벌 투자 직무의 **구조적 수요 증가**를 직접적으로 의미합니다.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확장, 해외 상장 ETF 라인업 확대, 해외 대체투자 상품 소싱, 해외 자회사 운영 효율화, 국경 간 세무·규제 자문 강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해외사업이 "선택적 성장 동력"이었다면, 2026년 현재는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필수 체력"으로 의미가 전환됐습니다.

#### 부동산PF·해외부동산이라는 이중의 리스크 그늘

반면 리스크 사이드의 진행 상황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부동산PF의 C·D등급(유의·부실 우려) 익스포저는 22.9조 원(전체의 10.9%)이었고, 2025년 9월 말 증권업 PF 대출 잔액은 116.4조 원, 연체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지원-글로벌 투자

율 4.24%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2027년부터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20% 의무화**를 예고했으며, 이는 사실상 PF를 예전처럼 '적은 자본으로 레버리지'하여 운영하는 과거 방식의 종언을 뜻합니다. 중소형사에게는 PF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이 되었고, 대형사에게는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야 하므로 ROE 하방 압력이 됩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2024년 약 3,400억 원의 손실을 인식했으며, 프랑스 마중가타워를 비롯한 주요 해외 오피스 자산이 3년 연속 손상차손을 반영 중입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해외 대체투자 관련 익스포저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2024년 IB 부문 249억 원 손실의 상당 부분이 이 영역에서 비롯됐습니다. 즉 증권업계 전반에서 "해외 대체투자"는 단순한 성장 테마가 아니라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인 영역**으로 재정의되고 있으며, 신규 해외 투자를 집행할 때도 단순한 수익률 추구가 아닌 시나리오 기반 스트레스 테스트와 엑시트 플랜 사전 설계가 의사결정 표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본사지원-글로벌 투자 직무 관점에서 보면, 이는 업무의 실체가 "해외 딜 지원"에서 "해외 딜의 전 생애주기 리스크 통제"로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 초대형IB·IMA가 재편하는 자본 게임의 새 국면

자본 규모에 따른 **티어 분화**가 2025년을 기점으로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10개사로 KB·한투·NH·삼성·미래·신한·메리츠·하나·키움·대신이 해당하며, 4조 원 이상 초대형IB는 5개사(한투·NH·KB·미래·삼성)로 한정됩니다. 발행어음 인가는 단 4개사(한투·NH·KB·미래)에만 부여되어 있으며, 발행어음은 조달-운용 마진이 높은 구조적 수익원입니다. 2025년에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요건의 **IMA(종합투자계좌)** 인가를 한투·미래가 신청했으며, 6호 초대형IB 후보로 키움·하나·메리츠가 경쟁 중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자기자본 2조 원대로 종투사·초대형IB·발행어음·IMA 모두 미지정** 상태이며, 이 구조적 한계가 전략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자기자본을 3조 원까지 끌어올리려면 약 1조 원의 유상증자 혹은 이익 누적이 필요하며, 초대형IB인 4조 원까지는 약 2조 원이 필요합니다. 한화그룹 전체의 자본 배분 우선순위(방산·해양·에너지)를 감안할 때 대규모 증자는 현실적 선택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의 합리적 대안은 "자본 게임 참여"가 아니라 **"자본 게임 바깥의 새로운 전장 개척"**이며, 이것이 디지털 자산·RWA·동남아라는 세 키워드로 수렴한 경영 결단의 이유입니다.

### 금리 하강 국면과 업황 양극화의 동학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4년 10월 3.50%에서 시작해 **2025년 5월 2.50%까지 100bp 인하** 후 7회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채권 운용 이익과 IB 부문(차환 수요·LBO 금융)에 우호적이나, **대형사-중소형사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대형사는 조달금리 하락의 이점을 대규모 자기자본 운용에 레버리지할 수 있는 반면, 중소형사는 수익원의 다변화 폭이 좁아 금리 인하 혜택을 온전히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홍콩H지수 ELS 사태(2023년 말 은행 15.4조·증권 3.4조 판매, 평균 배상비율 31.6%)의 레거시 비용이 2025년까지 이어지며, 고위험 구조화 상품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는 WM 부문의 상품 판매 가능 범위를 좁혔지만, 동시에 "상품 구조가 투명한 해외주식·ETF·해외 대체투자"의 상대적 매력도를 높였습니다. 본사지원-글로벌 투자 직무에 주어진 과제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해외 상품의 리스크 설명력·규제 준수력·공급망 신뢰도**를 제도화하는 일입니다.

### 디지털 전환과 토큰증권(STO) 제도화라는 미래 전장

한국 증권업의 향후 5~10년을 좌우할 변수는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RWA(실물자산 토큰화)** 확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부터 STO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했으며, 2024~2025년에는 대형 증권사들이 부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지원-글로벌 투자

동산·지식재산권·예술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STO 시범사업을 앞다퉀 추진했습니다. 2026년 입법 로드맵이 구체화되면 본격적인 STO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증권업의 수익 구조를 "중개·인수 중심"에서 "발행·유통·커스터디·청산 통합 플랫폼"으로 확장시킬 가능성이 큼니다.

한화투자증권이 "Global No.1 RWA Hub"를 천명한 것은 이 국면에서 플랫폼 선점자가 되겠다는 의지 선언이며, 단순한 홍보 구호가 아니라 기술·규제·해외 네트워크가 동시에 요구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글로벌 투자 직무가 RWA 비전과 연결되는 지점은, 국내에서 발행된 토큰증권이 동남아·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유통되기 위한 크로스보더 법적·규제적·시스템적 설계를 담당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자기소개서·면접에서는 "증권업 호황 = 모두의 성장"이라는 단순 서사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대신 "자본 티어별 전략 차별화"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한화투자증권은 초대형IB 경쟁이 아닌 동남아·디지털자산이라는 틈새 시장에서 차별화된 포지션을 구축 중"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는 논리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해외주식 매매수가 역대 최대, STO 제도화 임박,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고도화"라는 세 변수를 엮어,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가 바로 이 교차점에서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포지션임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가 됩니다.

## 2장. 경쟁사 비교와 한화투자증권의 전략 포지셔닝

### 자기자본 기준 업계 지형도의 명확한 계층 구조

2024년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 순위는 한국투자증권(11.16조) > 미래에셋증권(10.41조) > NH투자증권(8.61조) > 삼성증권(7.64조) > 메리츠증권(7.54조) > KB증권(6.69조) > 하나증권(6.10조) > 키움증권(6.08조) > 신한투자증권(5.68조) > 대신증권(4.13조) 순이며, 그 아래 유안타·**한화투자증권(약 1.49조, 연결 1.71조)**·교보·신영·현대차 등 중형사가 포진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업계 12위권**에 해당하며, Top 10과의 자본 격차가 뚜렷합니다. 1위 한국투자증권과의 격차가 약 7.5배, 10위 대신증권과의 격차도 약 2.8배에 달한다는 점은, 단순히 "규모를 따라잡는 전략"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이 계층 구조는 사업 영역 선택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이어야 가능한 종투사의 신용 공여 한도 확대, 4조 원 이상의 초대형IB의 외화 일반환전 업무, 발행어음 4개사의 저원가 장기자금 조달, 8조 원 이상의 IMA 인가 — 각각의 임계치를 넘지 못하는 회사는 해당 사업 자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 2조 원대에 머물러 있는 이상, 이 모든 구조적 상위 사업은 당장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제약은 "다른 곳에 자원을 집중할 자유"를 의미합니다.

### 경쟁사별 핵심 차별화 요소의 세밀한 독해

**한국투자증권**은 2025년 상반기 반기 영업이익 1조 798억 원을 돌파하며 IB 1위·발행어음 최대 규모·자기자본 1위의 삼관왕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IPO·회사채 인수주관에서 거의 모든 대형 딜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퇴직연금·랩어카운트·ELS 등 전방위 상품 라인업이 강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사업 최강자로, 2024년 11월 인도 웨어칸 인수를 완료해 인도 현지 300만 고객 기반을 확보했고, 퇴직연금 점유율 28%로 시장 1위입니다. 단, 프랑스 마중가타워 등 해외 부동산 손실 부담이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어 "해외 진출 선구자의 그림자"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자산 1억 원 이상 HNWI 자산 312.8조 원을 확보한 WM 특화 증권사로, 삼성 브랜드의 신뢰도와 리테일 자산관리 역량의 결합이 핵심 차별화 요소입니다. 초대형IB 5개사 중 유일하게 발행어음에 진출하지 않은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지원-글로벌 투자

전략은, 발행어음의 낮은 마진보다는 WM 수수료 이익 극대화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KB증권**은 2025년 LG CNS IPO 대표주관에서 보듯 DCM-ECM 인수주관 역량이 강점이며, KB금융그룹 리테일 채널과의 시너지로 WM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메리츠증권**은 IB·부동산 딜과 프로페셔널 성과보상 체계로 ROE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독특한 강소기업형 대형사입니다. "소수정예 실적주의"로 유명하며, 부동산 PF에 공격적으로 참여해 왔으나 최근에는 신중 기조로 선회했습니다. **키움증권**은 개인 브로커리지 1위·영업이익률 12%로 업계 최고 수준이며, 온라인 채널 집중 전략으로 오프라인 영업점 비용을 최소화해 효율적인 원가 구조를 유지합니다. 6호 초대형IB 최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IPO·회사채 인수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은 은행지주 산하 계열사로서 그룹 시너지 활용 전략을 공유하나, 그룹 내 자본 배분 우선순위 경쟁이 상시적 과제입니다.

### 한화투자증권의 독자 포지션 — "중형+디지털+동남아" 3차원 차별화

한화투자증권은 자본 규모로는 중형사이지만, 세 가지 축에서 독자적 포지셔닝을 구축했습니다. 첫째, **동남아 3개국 금융 벨트**입니다. 베트남 Pinetree Securities는 2019년 HFT증권 인수를 기반으로 설립되어 2025년 영업수익 216억 원, 세전이익 43억 원을 기록했으며, 베트남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 확고한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싱가포르 Pinetree Pte(2020년 설립)는 아세안 금융 허브 역할을 담당하며, 인도네시아 PT Ciptadana Sekuritas Asia(2024년 10월 지분 80% 인수 완료)와 Ciptadana Asset Management(2025년 12월 인수 완료)는 리프그룹(재계 6위) 30년 업력의 증권+자산운용 투트랙 플랫폼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입니다. 중형사 중 이 정도의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한 증권사는 사실상 한화투자증권이 유일합니다.

둘째, **두나무 지분 5.94%** 보유입니다. 2021년 퀀텀으로부터 583억 원에 인수한 지분이 현재 평가가치로는 투자금 대비 10배 이상의 잠재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생태계에 직접 연결되는 전략적 관문** 역할을 합니다. 2025년 11월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1:2.54) 의결 이후에도 한화투자증권은 "매각 계획 없음"을 공시하여 장기 파트너십 유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2024년 AI 기반 통합 MTS 출시와 STO 플랫폼 구축으로 **디지털 DNA**를 조직 깊숙이 이식하고 있습니다. 단일 앱에서 국내주식·해외주식·ETF·채권·펀드를 통합 거래할 수 있도록 UI/UX를 전면 재설계했으며, 리서치 콘텐츠·AI 종목 추천 기능을 결합해 "중형사 수준에서는 드문 디지털 완성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 축이 결합되면 "**아세안에서 RWA·디지털 자산을 유통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유일무이한 포지셔닝이 가능해지며, 이것이 2020년대 후반 한화투자증권 전략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 2025년 턴어라운드 의미하는 것 — 숫자와 구조의 이중 해석

2024년 IB 부문 249억 원 손실에서 **2025년 IB 운영수익 809억 원·손익 491억 원**으로 턴어라운드한 것은 단순한 시황 반등의 결과가 아니라 "선제적 부동산 부실 인식"이라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즉 2024년에 부실 자산을 과감히 털어내고 2025년에는 깨끗해진 재무제표 위에서 신규 딜을 쌓아올린 것이며, 이는 회계적 관점에서 "빅배스(Big Bath) 후 정상화" 패턴입니다.

2025년 연결 매출 3조 946억 원(+23.9%), **영업이익 1,477억 원(+272%)**, 당기순이익 1,020억 원, 자기자본 2조 682억 원(+21.22%)은 중형사 중 가장 두드러진 실적 반등입니다. NCR은 863%로 재무 건전성도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 1분기 순이익은 371억 원으로 전년 766억 원 대비 반토막이었고, 이는 **트레이딩 의존도가 높아 분기 변동성이 크다는**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Trading 부문이 운영수익 789억 원으로 전체의 상당 부분을 견인했으며, 그중에서도 전략운용본부 PI 투자 수익이 306억 원으로 전년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지원-글로벌 투자

37억 원 대비 +269억 원 급증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PI 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분기 간 이익이 큰 폭으로 변동하므로, 2026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반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핵심 이슈 — 세 가지 결정적 변수

첫째, **2025년 7월 대표이사 전격 교체**입니다. 한두희 대표는 2025년 3월 주주총회에서 2027년까지 연임이 확정됐으나, 불과 4개월 뒤 **장병호 한화생명 부사장이 신임 대표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증권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통상 연임 직후 교체는 경영 실패 또는 중대한 전략 전환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화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IB 부문 손실과 2025년 1분기 실적 부진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인도네시아 Ciptadana 인수 완료와 자산운용 인수 진행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중책 위임**이라는 해석이 업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한화생명 부사장 출신의 장병호 대표는 보험·자산운용·디지털·글로벌이라는 네 가지 이력을 모두 갖춘 흔치 않은 인재로, "한화 금융네트워크 전체의 글로벌 허브 실행자"라는 중책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2025년 11월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1:2.54)** 의결 이후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지분 "매각 계획 없음"을 공시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한화투자증권이 가상자산 테마로부터의 단기 차익 실현 유혹을 거부하고 장기 플랫폼 전략에 몰입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둘째, 네이버페이-업비트 통합 체제 내에서 한화투자증권이 제도권 금융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이 결정은 주주 가치 측면에서는 단기적 기회비용이 발생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 비전의 진정성을 시장에 증명한 사건입니다.

셋째, **4년째 무배당 기조**로 주주환원 논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중형사들이 2024~2025년 배당 확대·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것과 달리, 한화투자증권은 자본 확충 및 신사업 투자 우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 규모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글로벌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경영 판단의 결과이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불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자본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며, 면접에서 "주주환원 약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단기 배당 대신 장기 성장 투자에 자원을 배분하는 경영진의 의지를 지지한다"는 프레임으로 답변하는 것이 일관성을 갖습니다.

### 한화투자증권의 SWOT — 재구성된 전략 지도

Strength 측면에서는 동남아 3국 네트워크, 두나무 지분, AI 기반 MTS, 2025년 턴어라운드 회복된 재무 체력, 한화그룹 브랜드와 금융네트워크 시너지가 결합됩니다. Weakness는 중형사 자본 한계, 발행어음·IMA 진입 불가, 트레이딩 의존도 과다, 브랜드 인지도 대형사 대비 열위, 잡플래닛 2.8점이 시사하는 조직문화 개선 과제입니다. Opportunity는 STO 제도화, 아세안 시장 고성장, RWA 플랫폼 선점, 한화그룹 금융 부문 글로벌 허브 위임입니다. Threat는 해외 부동산 추가 손실 가능성, 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20% 의무화,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대형사의 중형사 영역 침투입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한화투자증권 = Top10이 아닌 회사"라는 사실을 회피하지 말고, "Top10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간 중형사"로 재정의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스토리라인입니다. 면접에서 경쟁사 대비 강점을 묻는 질문에는 "자본 규모가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간적 선형성(베트남 6년·인니 2년)과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전략적 선점**"을 답변의 핵심으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또한 "만약 한화투자증권이 3년 뒤 사라진다면 시장에서 어떤 공백이 생길까"라는 역할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던져본 뒤, 그 공백을 "메우고 확장하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서사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고급 수준의 자기소개서 전략입니다.

### 3장. 한화투자증권 심층 분석 — 턴어라운드와 디지털·글로벌 피벗

#### 사업 구조의 4개 기둥 재편 — 수익 포트폴리오의 새 균형

2025년 실적 기준 한화투자증권의 사업은 네 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의 역할과 기여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WM(자산관리)는 개인 금융상품 잔고 확대로 안정적 수익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액자산가 대상 PLUS 브랜드와 일반 개인 대상 MTS 채널의 투트랙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2025년 수수료수익 증가에 핵심 기여를 했습니다. 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만큼의 초고액 자산가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중산층·상위중산층 고객 기반에서 안정적 수수료를 창출하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홀세일 부문**은 순영업수익 433억 원(+65억 원)으로 법인·기관 채널을 담당하며, 채권·ETF·파생상품·구조화 상품을 기관 고객에게 공급합니다. 기관 고객은 브로커리지 수수료 외에도 프라임브로커리지·증권대차·RP 등 부가 수익원이 함께 발생하므로, 상대적으로 이익의 질이 높은 부문입니다. **Trading**은 전략운용본부의 자기자본투자 (PI) 시장 활성화로 순영업수익 306억 원(전년 37억 원 대비 +269억 원 급증), 부문 전체 78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5년 턴어라운드의 가장 큰 숫자 기여자이지만, 앞서 언급했듯 분기 변동성이 큰 부문이기도 합니다.

**IB**는 2024년 249억 원 손실에서 2025년 순영업수익 809억 원·손익 491억 원으로 극적 반전을 이뤘습니다. 이는 부동산PF·해외 대체투자 선제적 손실 인식에 따른 기저효과, 코스피 활황에 따른 ECM 딜 증가, 금리 인하에 따른 DCM 차환 수요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수수료수익은 2,812억 원(+617억 원)으로 본업 경쟁력도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4개 부문을 종합하면, 2024년에는 Trading·WM이 IB·대체투자 손실을 메우는 구조였다면, 2025년에는 4개 부문이 모두 이익을 창출하는 정상 구조로 복귀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라는 장기 비전의 구체화 경로

한화투자증권은 202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로의 전환"을 공식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5~10년 뒤의 증권업 지형을 전망할 때 **디지털 자산 유통·커스터디 역량이 없으면 도태된다**는 전략적 판단에 기반합니다. 2024년 AI 기반 통합 MTS("한화투자증권 MTS")를 출시했고, 2025년에는 "Global No.1 RWA(실물기반 토큰화 자산) Hub"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외주식 중개가 아닌, **전통 금융자산을 토큰화하여 국경 없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사업 모델을 재정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RWA(Real World Asset) 토큰화는 부동산·채권·금·예술품·사모펀드 등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유통화하여 소액 투자자도 접근 가능한 글로벌 2차 시장을 만드는 모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BlackRock BUIDL 펀드, Ondo Finance, Securitize 등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한국은 제도화 초기 단계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이 "Global No.1"을 내건 것은, **국내 제도화와 동시에 아세안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경 간 유동성 허브**가 되겠다는 원대한 비전입니다. 두나무 지분 5.94%가 이 비전의 전략적 자산이며, STO 플랫폼 구축과 결합되어 장기 로드맵을 형성합니다. 물론 이 비전의 실현에는 규제 정비, 기술 인프라, 국제 파트너십, 수요 검증이라는 네 가지 전제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빠르면 2027년, 통상적으로는 2030년 전후가 본격적 성과 구간으로 예상됩니다.

#### 한화그룹 내 위상과 금융 계열 시너지의 작동 구조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지원-글로벌 투자

지배구조상 한화투자증권은 (주)한화 → 한화생명(43.2%) → 한화자산운용(100%) → 한화투자증권(약 19.63%)의 손자회사 구조에 속합니다. 최상위 지배구조는 김승연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며, 최근에는 김동관 부회장 체제로의 승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화금융네트워크**라는 공동 브랜드 아래 한화생명·한화투자증권·한화손해보험·한화자산운용·한화저축은행 5개사가 묶여 있어 교차 판매·상품 공급·고객 풀 공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화생명의 종신보험·연금 가입자 풀에서 한화투자증권의 WM 고객이 유입되고, 한화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이 한화투자증권 MTS를 통해 판매되며, 한화저축은행의 예금 고객이 증권 계좌로 이동하는 크로스셀링 동선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병호 신임 대표가 한화생명 부사장 출신이라는 점은, **그룹 금융 부문 전체의 글로벌 허브 전략을 한화투자증권이 실행 주체가 되어 이끌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화생명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 이미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이며, 한화자산운용도 아세안 투자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동남아 3국 증권·자산운용 네트워크는 이 모든 계열사가 현지 시장에 접근하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한화투자증권은 계열사의 자본력·고객 기반·상품 공급망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너지는 아직 잠재 단계에 있으며, 이를 실제 수익으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 3~5년의 핵심 과제입니다.

### 글로벌 투자 사업의 현재 지점 — 동남아 3국 전개 현황

해외 사업의 핵심은 **동남아 3개국 금융 벨트**입니다. 베트남 Pinetree Securities는 2019년 베트남 HFT증권 인수를 기반으로 설립되어, 2025년 VietnamBiz '베스트 리테일 브로커 TOP 10'에 선정되며 현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존재감을 확립했습니다. PineX(소셜트레이딩)·Stock123(교육앱)·Alpha Trading(전문가용) 등 세 가지 디지털 플랫폼으로 고객 세그먼트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베트남 젊은 세대의 디지털 투자 수요를 성공적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인구 1억·평균연령 30세·주식 계좌 개설자 약 800만 명(전체 인구의 8% 수준)의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입니다.

싱가포르 Pinetree Pte는 아세안 지역 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역내 투자자문·자산관리·기관 영업을 담당합니다. 싱가포르의 규제 투명성과 세제 혜택으로 인해 아세안 금융 활동의 중심지이며, 한화투자증권이 이곳에 법인을 둔 것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 등 역내 확장을 위한 지역 본부 기능**을 염두에 둔 배치입니다. 인도네시아 Ciptadana는 리포그룹(재계 6위) 30년 업력의 증권 중개회사로, 2024년 10월 지분 80% 인수 완료에 이어 2025년 12월 자산운용 인수까지 마무리하며 **증권+자산운용 투트랙**을 완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8억(세계 4위), 평균연령 29.7세, OECD 성장률 전망 5.1%의 초대형 장기 성장 시장입니다. 1인당 GDP는 약 5,000달러 수준으로 아직 낮지만, 중산층 확대 속도가 빠르고 디지털 금융 보급률이 급증 중입니다. 자본시장 인프라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2030년대 초반에는 아세안 최대 증권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한화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에서 증권·자산운용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향후 10년의 성장 스토리에 직접 탑승하는 전략적 베팅입니다. 과거 한화차이나(중국)와 카자흐스탄 부동산 법인 경험도 축적되어 있어, 신흥국 투자의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조직 내 지식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 재무 건전성과 숫자로 본 현재 상태

2025년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 376.6억 원(+578% YoY), 순이익 214.5억 원(+533% YoY)이며, 3분기 누적으로는 영업이익 1,225.3억 원·순이익 879.3억 원입니다. 연간 실적은 앞서 언급한 대로 영업이익 1,477억 원·순이익 1,02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총자산 17조 3,579억 원(+23.82%), 자기자본 2조 682억 원(+21.22%), NCR 863%로 재무 체력은 튼튼해졌습니다. 임직원 1,048명, 고객 수 133만 명 규모이며, ROE는 약 5~6% 수준으로 업계 평균 10%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2024년 2~3% 수준에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지원-글로벌 투자

니다.

부채 구조를 보면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잔고와 콜머니 등 단기 자금조달 의존도가 있으며, 이는 금리 변동기에 조달비용 상승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2조 원을 넘어선 것은 상징적 이정표이며, 다음 목표는 3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위 획득으로 보이지만, 현재 이익 창출력을 감안할 때 외부 증자 없이 5~7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자본 규모 내에서 ROE를 끌어올리고, 디지털·글로벌 신사업에서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경로입니다.

### 잠재 리스크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검토

첫째, **중형사 자본 한계**로 발행어음·IMA 시장 진출이 원천 차단됩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기회 제한을 넘어, 대형사 대비 조달비용 구조에서 영구적 열위를 의미합니다. 둘째, 부동산PF는 선제적 손실 인식에도 불구하고 신평사들이 **"중소형사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합니다. 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등은 2025년 크레딧 리포트에서 한화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아웃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부동산PF 익스포저와 트레이딩 의존도에 대한 경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트레이딩 의존도가 높아 시황에 따라 **분기 실적 변동성**이 큼니다(2025년 1분기 순이익 YoY -51.5%). 이는 "턴어라운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 의구심의 주요 원인이며, 2026년에도 분기 실적 변동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두나무 연계 테마주화**로 주가가 본업 펀더멘털과 괴리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기업 평판에 양날의 칼입니다. 가상자산 호황기에는 주가가 펀더멘털 이상으로 급등하지만, 가상자산 침체기에는 반대로 과매도가 발생하여 자본 조달에 불리해집니다.

다섯째, 2025년 연임 직후 대표가 기습 교체된 점은 **조직 안정성에 대한 관찰 변수**입니다. 장병호 대표 체제가 조직 문화·전략에 가져올 변화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아직 2026년 상반기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섯째, **인도네시아·베트남 신흥시장 리스크**가 있습니다. 환율 변동, 정치적 불안정, 규제 변경, 현지 파트너와의 분쟁 등 신흥국 특유의 비재무적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일곱째, **디지털 자산·RWA 규제 리스크**입니다. 국내외 규제가 예상보다 보수적으로 정비될 경우, 한화투자증권의 디지털 전환 전략 추진 속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면접 활용 포인트:** "한화투자증권의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부동산PF"나 "실적 변동성"보다 **"자본 규모가 전략 선택지를 제약한다는 구조적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RWA·동남아라는 비주류 경로를 먼저 선점하는 전략"**으로 답하는 것이 차별화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비대칭 전략의 충돌 지점에서 **본사지원-글로벌 투자 직위가 수행하는 중재자·조율자 역할이 왜 결정적인지**"를 스스로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면접관은 지원자를 단순한 '취준생'이 아니라 '직무 이해도를 갖춘 입사 예정자'로 인식할 것입니다.

## 4장. 인재상·조직 문화·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 한화그룹 공통 인재상 — 도전·헌신·정도의 역사적 뿌리

한화그룹은 2011년 5월 김승연 회장이 선포한 3대 핵심가치 "도전(Challenge)·헌신(Dedication)·정도(Integrity)"를 모든 계열사의 공통 인재상으로 운용합니다. 이는 모태 정신인 "신용과 의리"를 현대적으로 재정의한 것으로, CI '한화 트라이스클'의 3개 타원이 이를 상징합니다. 한화그룹의 역사는 1952년 한국화학주식회사로 시작해 화학·방산·석유화학·관광·레저·금융·해양·에너지로 확장된 70여 년의 궤적을 갖고 있으며, 3대 핵심가치는 이 여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조직 DNA로 각인된 가치 체계입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지원-글로벌 투자

구체적으로 **8대 행동원칙**으로 전개됩니다. 도전 영역은 "적극적 자기개발, 열린 사고·창의적 발상, 자신감 있는 도전적 목표 설정·달성"이며, 헌신 영역은 "공동 목표 최우선, 고객 약속·가치 창출, 공동운명체 의식·협력", 정도 영역은 "원칙에 따른 정직, 공과 사 구분·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대우"입니다. 8대 행동원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인사 평가, 승진 심사, 보상 기준에 실제로 반영되는 지표이며, 한화 계열사 현직자 인터뷰에서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 한화투자증권의 "Buidler" 정체성 — 그룹 가치의 재해석

한화투자증권은 그룹 공통 가치를 준용하되, 2026년 채용에서 "Buidler(비들러)"라는 고유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Buidler는 영어 'Builder'의 의도적 변형 표기로, 가상자산·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입니다.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도전적 실행력을 의미하며, 시장 하락기에도 꾸준히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이 이 용어를 채용 브랜드의 핵심 개념으로 채택한 것은,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라는 비전과 문화적 DNA를 동기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를 추구한다"는 공식 문구와 결합되며, 이는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라는 비전과 맞물려, **기존 전통 금융의 틀을 깨고 새로운 모델을 실제로 '빌드'하는 실행가**를 인재 모델로 설정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Buidler 정체성을 어필하려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서사가 필요하며, "완벽한 결과물"보다는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첫 버전을 내놓고 이를 개선해나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 조직문화의 두 얼굴 — 전통과 혁신의 공존

외부 평가는 엇갈립니다. 잡플래닛 기업리뷰 평점은 약 2.8/5(191건)로 낮은 편이며, "능력 있는 사람은 나가고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은 남는다"는 부정적 코멘트가 반복됩니다. 이는 전통적 위계 조직에서 드러나는 공통 패턴이며, 보수적 의사결정·느린 승진·성과보다 연차 중심 평가 등이 지적됩니다. 반면 캐치 기준 **신입 초봉 약 6,370만 원, 평균연봉 약 1억 600만 원**으로 보상 수준은 업계 상위권이며, 재무평가는 상위 16%입니다. 증권 업계 평균 초봉이 5,000~6,000만 원, 평균연봉 8,000만~1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화투자증권은 업계 상위권의 처우를 제공합니다.

공식 채널(recruit-hanwhawm.com)의 현직자 인터뷰에서는 "열린 소통, 논리·근거 중심 의견 교환, 경력직에게도 텃세 없이 과장→임원 성장 경로 부여"가 강조됩니다. 전문계약직·디지털 직군에 한해 **직급·호칭 폐지("김한화 님" 호칭), 리모트 워크·PC-OFF 정식퇴근·최대 2년 채용휴가(자기개발 휴직)**, 진급 시 1개월 안식월 등 유연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 두 얼굴의 공존은 "전사적으로는 전통 금융사 문화이지만, 디지털·글로벌 직군에는 스타트업 수준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이원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한화투자증권은 **전통 금융사 문화 + 디지털 혁신 드라이브**가 병존하는 과도기적 조직이라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지원자 관점에서는 "어느 쪽이 나에게 맞는가"보다 "두 문화를 연결하는 번역자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사지원-글로벌 투자 직무는 전통적 본사 스태프의 정확성·절차 준수 요구와 글로벌 신사업의 유연성·실험 정신이 동시에 요구되는 자리이므로, 이 이원적 역량의 균형이 특히 중요합니다.

### 증권업·글로벌 투자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 특성 — 6가지 핵심 역량

도메인 공통적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어 능통**(Opic IH 이상이 사실상의 기준선)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격증 점수가 아니라 해외 파트너와 단독 콜 미팅·영문 이메일·영문 IR 자료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지원-글로벌 투자

작성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투자 직무에서 영어는 '우대' 사항이 아니라 '최소 요건'이며, Opic IH가 아닌 AL 또는 Business English Certificate 보유자가 실제로는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등 현지 언어를 구사하면 강력한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둘째, **숫자 감각과 재무 분석력**입니다. DCF(현금흐름할인법)·Comps(비교기업분석)·NAV(순자산가치) 등 기업·자산 밸류에이션 도구를 해외 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 계산 능력이 아니라, 가정 (assumption)을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분기시키며 결과를 해석하는 사고방식을 포함합니다. CFA·CPA 자격은 강력한 신호이며, 재무학·회계학·경제학 전공자는 학부 수업에서 이미 기본기를 갖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리스크 감수성과 디테일**입니다. 해외 직접투자 신고·외환거래법·현지 규제라는 복잡한 컴플라이언스를 실수 없이 처리하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특히 외환거래법 위반은 과징금·형사처벌 리스크가 큰 영역이므로, "디테일에 강하고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성향"은 본사지원 업무의 필수 덕목입니다. 넷째, 문화적 감수성(cross-cultural agility)입니다. 베트남·인니·싱가포르 각국의 비즈니스 관행과 의사결정 방식 차이를 체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으로, 현지 파트너와의 신뢰 구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체력과 출장 가용성**입니다. 시차 근무(오전에는 한국, 오후에는 베트남·인도네시아 업무 집중)와 분기별 해외 현지 미팅을 소화할 수 있는 기초 조건입니다. 여섯째, **IT 리터러시**입니다. 엑셀 고급(피벗·VBA), 파워포인트 전문가 수준, 블룸버그·Refinitiv Eikon 등 금융 정보 단말기, 최근에는 파이썬·SQL 기초까지 갖추는 추세입니다. 특히 RWA·디지털자산 영역을 다룰 때는 블록체인·토큰 구조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 장기근무·다부서 협업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요건

본사지원-글로벌 투자 직무 특성상 특정 시즌(반기 결산·해외법인 경영회의·신규 법인 설립 프로젝트)에 근무 강도가 급증하는 패턴이 예상됩니다. 결산 시즌에는 해외법인 재무 데이터 취합·분석·본사 보고라는 병목 업무가 집중되며, 경영회의 시즌에는 경영진 보고자료 작성·현지 법인장 면담 조율 등이 겹칩니다. 신규 법인 설립은 6~12개월의 장기 프로젝트로, 타당성 검토부터 현지 등기·라이선스·인력 채용까지 전 단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 "불확실성 내에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허브 역할을 해내는 실행력"입니다.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무엇을 먼저 할지, 무엇을 미룰지, 무엇을 누구에게 위임할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결정적이며, 이는 경험으로 체득되는 메타 역량입니다. 현직 글로벌지원팀장 윤종우의 인터뷰에서도 "국가별 규제·시장·문화를 이해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을 조율하는 조력자/허브"가 반복 강조됩니다. 즉 "내가 직접 딜을 만드는" 성향보다 "여러 딜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돕는" 성향이 더 적합한 직무입니다.

### 조직 적응력 — 한화 조직 내에서 살아남는 법

한화그룹은 보수적 대기업 문화와 김승연 회장·김동관 부회장 체제의 강한 오너십 경영이 결합된 조직입니다. 이 환경에서 성공하려면 첫째, **상사·선배에 대한 예의와 기본 매너**를 확실히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둘째, **성과는 데이터로 말하되 관계는 사람으로 말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조직에 기여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1~2년 내 이직을 전제로 한 '경력 쌓기' 태도는 쉽게 간파됩니다. 넷째, **실수에 대한 인정과 빠른 복구가** 중요합니다. 금융권은 실수 자체보다 실수를 은폐·축소하는 행동에 훨씬 엄격합니다.

동시에 디지털·글로벌 직군의 유연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용휴가·리모트 워크·안식월 등은 제도로만 있고 실제로는 눈치 보이는 회사도 많지만, 한화투자증권은 공식 채널에서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어 실제 활용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장기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전달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지원-글로벌 투자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자기소개서·면접에서 "저는 도전적인 사람입니다"라는 추상적 진술은 감점 요소입니다. 대신 "**Buidler 정체성 + 도전·헌신·정도 3축**" 구조로, 각 키워드마다 구체적 행동 사례(결과 증빙 포함)를 1개씩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도전에는 "부족한 자원으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한 경험", 헌신에는 "팀 성과를 위해 내 일 외 영역을 자발적으로 담당한 경험", 정도에는 "원칙과 현실이 충돌할 때 원칙을 지킨 경험"을 각각 배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다부서 조율 경험"과 "**영어로 실무를 처리한 경험**" 두 가지는 직무 적합성을 입증하는 핵심 앵커이며, 이 두 경험이 자기소개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면 서류 통과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 5장. 직무 분석 — 본사지원 "글로벌 투자"의 실체

#### 2026년 상반기 공채의 직군 단위 채용 전환과 그 함의

2026년 4월 13일~27일 접수된 한화투자증권 상반기 신입공채는 **세부직무 기반에서 직군 단위 채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혁신지원실장 김도형의 공식 언급 "특정 직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확보가 중요"에서 드러나듯, 회사는 **잠재력·확장성**을 1순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한국 대기업의 신입 채용 트렌드와도 일치하는 변화로, SK·CJ·LG 등 여러 그룹사가 직군·계열 단위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직군 구조는 본사영업(IB·법인영업·Trading), 본사지원(디지털 기획·**글로벌 투자**·인사·재무·리스크·상품), 디지털 금융(Trading·IT), 영업점 PB 4개입니다. 전형절차는 서류 → AI면접 → 1차면접 → 2차면접 → 입사이며, 근무지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본사입니다. 직군 단위 채용의 함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세부직무에 완벽히 부합하는 경험"보다 "직군 전반에 걸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입사 후 실제 배치는 본인 희망·면접 평가·조직 필요의 3자 매칭으로 결정되므로, 면접 단계에서 "글로벌 투자 직무에 대한 명확한 관심과 준비"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사지원(Head Office Support)의 조직 내 위치

증권사 조직은 통상 프론트(IB·리테일·Trading) / 미들(리스크·컴플라이언스) / 백(운영·정산·IT) / 본사지원(기획·전략·인사·재무)으로 구성됩니다. 프론트는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조직, 미들은 리스크를 통제하는 조직, 백은 거래를 실행·정산하는 조직, 본사지원은 회사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조직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의 본사지원 직군은 **전사 공통 스태프 기능**으로, 프론트가 수익을 내도록 **지원·통제·기획**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투자"는 본사지원 내에서 **해외사업 전략·관리·지원 기능**을 전담하는 전문 트랙입니다. 일반적인 본사지원이 국내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글로벌 투자는 해외법인·해외 파트너·해외 자산·해외 규제라는 4가지 차원에서 본사 기능을 확장한 버전입니다. 즉 "본사지원 x 글로벌"의 교차점 직무이며, 두 영역의 역량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자리의 가치는 "회사가 해외에서 돈을 버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영업적 업무를 본사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기능적 필요성에서 나옵니다.

#### 핵심 업무 — 경력직 JD와 현직자 인터뷰로 역추론한 실제 업무

신입 공채는 직군 단위여서 세부 JD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6년 병행 중인 경력 채용의 "**글로벌지원(글로벌 사업 지원 및 기획)**" 포지션 JD와 글로벌지원팀장 인터뷰를 교차 검증하면 실제 업무 스펙트럼을 정확히 역추론할 수 있습니다. 공식 JD에 명시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지원-글로벌 투자

첫째, **해외법인 사업현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이는 베트남 Pinetree-싱가포르 Pinetree-인도네시아 Ciptadana의 월간·분기·연간 재무 및 영업 데이터를 취합·분석하여 본사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업무입니다. 현지 회계기준과 한국 연결기준 간 차이를 조정하고, 통화 환산 손익을 반영하며, KPI 대비 달성도를 평가합니다. 둘째, **해외 직접 투자 관련 대내외 신고·보고 업무**입니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외환신고, 금융감독원 보고, 금융투자협회 공시 등 다수의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투자·지분 변동·배당·청산 등 모든 자본 이동에 대해 적기에 정확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셋째, **컴플라이언스·회계·IT 등 해외법인 내부통제**입니다. 본사의 내부통제 기준이 해외법인에서도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점검합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방지(CFT)·반부패(FCPA 등) 등 국제 규제 영역에서의 통제가 핵심입니다. 넷째, **해외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입니다. 시장 조사·타당성 검토·현지 파트너 탐색·M&A 실사·가격 협상·계약 체결·등기·라이선스·초기 인력 배치 등 법인 설립의 전 라이프사이클을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합니다. 이는 업무 중 가장 복잡적이고 장기적인 과제이며, 6~24개월의 일관된 집중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글로벌 신사업 전략 도출 및 실행**입니다. 단순한 기존 법인 관리를 넘어, "아세안 RWA 허브 구축", "디지털자산 크로스보더 서비스", "현지 상품 라인업 확장" 등 신규 전략 테마를 발굴하고 실행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자격요건은 **영어 Opic IH 이상 능통 필수**이며, 우대사항은 **전통금융-디지털자산 연계 사업 이해도**입니다. 이는 한화투자증권이 글로벌 투자 직무를 '전통적 본사 지원'이 아닌 '디지털 전환 실행 엔진'으로 재정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 이해관계자 맵 — 사내 허브·사외 브리지의 다층 구조

직무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다층적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업무 성공의 핵심입니다. **사내 프론트**는 IB본부·법인영업·Trading·대체투자·PLUS(HNWI)·DA(디지털자산)본부이며, 이들의 해외 딜·해외 고객·해외 상품 관련 요청을 지원합니다. **사내 미들·백**은 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재무회계·법무·정보보호·IT이며, 해외법인 관련 규제·재무·법률·IT 이슈를 협업 해결합니다. **사내 경영진** 레벨에서는 경영기획·전략기획·외국인 사외이사와의 접점이 있으며, 중장기 전략 보고·해외 투자 의사결정 안건을 지원합니다.

**사외 해외법인**은 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 Pinetree 및 Ciptadana의 주재 임직원이며, 이들과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이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지 법인장(통상 한국 본사 파견 혹은 현지 채용 임원)·CFO·영업 본부장·컴플라이언스 헤드와의 정기·비정기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사외 파트너**는 현지 증권사·운용사·PE, 한화금융네트워크 5개사 계열사입니다. **사외 전문가**로는 현지 로펌(한국 로펌의 현지 사무소 포함)·Big4 회계법인·컨설팅 펌이 있고, 이들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되 비용과 품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규제당국**으로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외환)·금감원·금융투자협회, 그리고 현지국 금융감독기관(예: 인도네시아 OJK, 베트남 SSC, 싱가포르 MAS)이 포함됩니다. 각 규제당국과의 관계 관리는 장기적 신뢰 구축이 핵심이며, 신규 법인 설립·규제 변경 대응·검사 대응 등 중요 국면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직무의 본질은 이 모든 관계자를 "허브형 조율자"로 연결하는 것이며, 단일 전문성보다 **다영역 조정력**이 결정적 역량입니다.

### 필요 역량 — Hard/Soft의 명확한 분리와 조합

**Hard Skills**는 다음 6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영어(Opic IH 이상 필수, 실제 업무 수행 가능 수준)입니다. 화상 미팅에서 비영어권 영어 사용자들과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영문 계약서·실사 자료·이사회 안건을 읽고 핵심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무 분석·밸류에이션(DCF·Comps·NAV)입니다. 해외 기업·자산을 평가할 때 한국 방식이 아닌 국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특히 신흥국에서는 데이터 부족 상황에서의 가정 설정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지원-글로벌 투자

능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엑셀·파워포인트 상급(재무 모델링·경영진 보고서)입니다. 엑셀 피벗·고급 함수·VBA·Power Query는 기본이며, 파워포인트는 본사 경영진·이사회·외국인 사외이사 대상 보고 품질이 판단 기준입니다. 넷째, 해외 자본시장·규제 이해(아세안 금융 시스템, 현지 증권업 라이선스)입니다. 각국의 증권업 면허 체계, 외국인 투자 제한, 세제, 상장 기준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금융상품 지식(주식·채권·파생·대체투자·RWA·토큰증권)입니다. 전통 증권에서 디지털 자산까지 전 영역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외환거래법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프로세스 이해입니다. 이는 법령 원문을 읽고 적용하는 능력을 요구하며, 법무·회계 부서와 협업하여 실무를 완결하는 역량이 포함됩니다.

**Soft Skills**는 다음 6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다국적·비동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시차·언어·문화가 다른 상대와 이메일·메신저·화상회의를 통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둘째, 문화적 감수성입니다. 베트남의 관계 중심 문화, 인도네시아의 느린 의사결정, 싱가포르의 효율 중심 문화 등을 체감적으로 이해하고 각국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디테일·리스크 민감도입니다. 규정 해석에서 한 글자 차이가 법적 결과를 바꿀 수 있으며, 신고서 하나의 오기가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장거리 협업 역량입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팀과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 목표를 추진하는 능력으로, 단기 출장에서의 관계 형성·일상적 비대면 소통의 정확성이 관건입니다. 다섯째, 허브형 조율 능력입니다. 여러 부서·법인·파트너의 이해를 조정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며, "본인이 직접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답이 나오도록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불확실성 내 유연성·빠른 학습력입니다. 신흥국 시장은 정보가 부족하고 환경이 빠르게 변하므로, 부분적 정보로 잠정 결정을 내리고 피드백을 통해 수정해나가는 역량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현직자 인터뷰에서 "직급·연차가 아닌 논리·근거 중심"의 의사소통이 강조되는 만큼, **데이터 기반 설득력**이 Soft Skill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와 분석 결과 이런 결론이 나온다"로 말하는 습관이, 조직 내에서 신뢰를 축적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KPI 및 평가 포인트 — 간접 기여의 정량화

성과 지표는 해외법인의 영업이익·ROE 달성도, 신규 해외투자 딜 실행 건수·금액, 해외 직접투자 신고 적기 이행률, 해외법인 내부통제 이슈 발생률, 신사업 프로젝트(법인 설립·파트너십) 마일스톤 달성도, 본사-해외법인 커뮤니케이션 응답 속도·만족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프론트와 달리 "수익 직접 창출"이 아닌 "해외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완성도"로 평가된다는 점이 본사지원 직무의 결정적 특성입니다.

이 특성은 개인의 커리어 관점에서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긍정적으로는 "조용히 일 잘하는 사람"으로 조직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임원 후보군으로 부상하는 경로가 됩니다. 부정적으로는 "내가 직접 만든 성과"를 숫자로 증빙하기 어려우며, 같은 연차의 프론트 대비 성과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균형 잡으려면, 본사지원 내에서도 **신사업 기획·해외 M&A 실무·경영전략 프로젝트** 등 눈에 띄는 프로젝트에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커리어 전략상 중요합니다.

### 가상 워크플로우 — 하루·월·연간 업무의 실제 모습

**하루 단위**로는 오전 9시 출근 직후 베트남·인도네시아 법인의 전일 영업 리포트를 수령·리뷰하고, 특이사항을 요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합니다. 오전 중 경영진 보고자료를 업데이트하며, 필요시 국내 규제 당국 신고 서류를 작성·제출합니다. 오후에는 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의 시차를 고려한 화상 미팅이 배치되며, 파트너사·현지 법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지원-글로벌 투자

무법인과 신사업·규제 이슈를 협의합니다. 업무 종료 전에는 당일 진행 사항을 팀 공유 폴더에 정리하고, 다음 날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외국인 사외이사·해외 법인장 대상 영문 IR 자료를 검토하거나, 미국·유럽 파트너와의 심야 콜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월간 단위**로는 해외법인 월간 경영실적을 취합해 본사 경영회의에 보고하고, 해외 직접투자 관련 외환 신고를 처리하며, 해외법인 컴플라이언스 점검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월 1회 현지 법인장과의 정기 컨퍼런스콜이 있으며, 분기별로는 3~5일의 현지 출장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외부 감사 대응, 현지 규제 변경 모니터링, 신규 딜 파이프라인 관리 등도 월간 루틴에 포함됩니다.

**연간 단위**로는 글로벌 중장기 전략(예: RWA 해외 허브 확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규 해외법인 설립 프로젝트를 타당성 검토부터 개업까지 전 라이프사이클로 관리하며, 해외 M&A·파트너십 딜(예: 베트남 HFT증권·인니 Ciptadana급 인수)을 지원합니다. 연초에는 전년 실적 결산·사업계획 수립, 분기마다 KPI 점검,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산·인력 계획, 연말에는 전사 성과 평가와 조직개편 검토 등이 진행됩니다. 이 연간 사이클은 3~5년 지속되면서 1~2건의 대형 프로젝트(신규 법인 설립·대형 M&A·신사업 런칭)가 중첩되는 구조입니다.

### 커리어 경로 — 이 직무가 5년·10년 뒤에 무엇이 되는가

본사지원-글로벌 투자 직무의 3년차 모습은 "특정 해외법인 전담자 혹은 특정 영역(컴플라이언스·재무·전략) 전담자"로 자리잡는 단계입니다. 5년차에는 팀장 승진 전 시니어 실무자로서 중형 프로젝트의 실질적 주도자가 되며, 7~10년차에는 글로벌지원팀장·해외법인 CFO 파견·그룹 전략 부서 이동 등의 경로가 열립니다. 10년 이상 경력에서는 해외법인 대표·본사 임원·그룹 금융네트워크 전략 임원 등 경영진 트랙으로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직무의 매력은 "금융 + 전략 + 글로벌"의 세 역량이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MBA·컨설팅·타 금융사·해외법인 이동 등 **외부 옵션도 풍부해진다**는 점입니다. 한화투자증권에 장기 재직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지만, 5~7년 경력 후 경쟁사·대기업 전략실·PE·컨설팅으로 이동하는 경로도 열려 있으며, 이는 직무 자체의 시장성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면접 활용 포인트:** 직무 질문에는 "해외 투자를 직접 집행하는 프론트가 아니라, **한화투자증권의 RWA·동남아 비전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인프라·전략 허브**"라고 포지셔닝하는 답변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 직무가 왜 프론트가 아니라 본사지원이나"는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때는 "프론트가 단일 딜에서 최대 수익을 내는 역할이라면, 본사지원-글로벌 투자는 **여러 딜과 여러 법인이 동시에 성공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역할**이며, 이것 자체 강점인 조율·기획 역량과 부합한다"는 구조로 답하시면 일관성 있는 스토리가 완성됩니다.

또한 "왜 대형사가 아닌 한화투자증권인가"라는 질문에는 "대형사의 글로벌 투자는 이미 정형화된 시스템 내에서의 운영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한화투자증권은 **동남아 3국·RWA·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직접 빌드하는 단계**에 있어 초기 기여자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차별화 논리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5년·10년 뒤의 본인 모습을 묻는 질문에는 "동남아 특정 국가의 법인장 혹은 본사의 글로벌 투자 팀장으로서, 한화투자증권의 글로벌 비전이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구체적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https://www.hanwha.co.kr/assets/data/philosophy/Hanwha\\_Investment&Securities\\_Sustainability\\_Report\\_2025.pdf](https://www.hanwha.co.kr/assets/data/philosophy/Hanwha_Investment&Securities_Sustainability_Report_2025.pdf)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지원-글로벌 투자

---

2. [https://www.hanwhawm.com/static/hanwha/recruit/CP600\\_2p.htm](https://www.hanwhawm.com/static/hanwha/recruit/CP600_2p.htm)
3. <https://recruit-hanwhawm.com/>
4. [https://www.hanwhain.com/web/hanwha/main\\_value/main\\_value.do](https://www.hanwhain.com/web/hanwha/main_value/main_value.do)
5. <https://www.hanwha.com/profile/sustainability/social.html>
6.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542751>
7. <https://m.news.nate.com/view/20260416n28665>
8. <https://www.sidae.com/article/2026041611191713576>
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3\\_0003402182](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3_0003402182)
10. <https://www.ajunews.com/view/20251113175410288>
11.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3318](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3318)
1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45396>
13. <https://www.sedaily.com/NewsView/2GQB1PTTZN>
14.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90116585119510>
15.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724>
16.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630>
1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707106>
18.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121609232950762>
19. <https://www.sedaily.com/NewsView/2H1R34209X>
20. <https://alhabiz.co.kr/news/view/1065612904318287>
21.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3/05/2024030580224.html](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3/05/2024030580224.html)
22. [https://www.hanwhacorp.co.kr/hanwha/investment/share\\_structure.jsp](https://www.hanwhacorp.co.kr/hanwha/investment/share_structure.jsp)
23. [https://comp.fnguide.com/SVO2/ASP/SVD\\_Main.asp?gicode=A003530](https://comp.fnguide.com/SVO2/ASP/SVD_Main.asp?gicode=A003530)
24. <https://kisrating.com/fileDown.do?menuCd=S1&gubun=P&fileName=ss20250429-2.pdf>
25.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3301033042066dd55077bc2\\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3301033042066dd55077bc2_18)
26.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4091157259914179ad43907\\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4091157259914179ad43907_18)
27. <https://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143785>
28.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91639>
29.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12091503433200104757>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지원-글로벌 투자

---

30. [https://m.g-enews.com/view.php?ud=202509051253191641288320b10e\\_1](https://m.g-enews.com/view.php?ud=202509051253191641288320b10e_1)
31. <https://www.jobplanet.co.kr/companies/1976/reviews/한화투자증권>
32. <https://www.catch.co.kr/Comp/CompSummary/860026>
3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414000447>
34. <https://cheme.skku.edu/2026/04/14/한화투자증권-2026년-상반기-신입사원-공개채용-4-27/>
35. <https://m.dailian.co.kr/news/view/1633207/>